

## 견당사

630년부터 838년까지 일본의 조정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진보적인 문명을 발달시킨 당나라에 19개의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견당사는 외교 및 통상 관계를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배우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이 배워 온 지식은 토지 및 행정 개혁, 인구 통계 작성, 나아가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모델로 한 헤이조쿄(현재의 나라)와 헤이안쿄(현재의 교토) 배치 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804년에 파견된 견당사단에는 사이초(767~822)와 구카이(774~835)라는 일본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승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각각 천태종과 진언종을 설립했으며, 수 세기에 걸쳐 일본의 철학, 미학, 종교 사상과 실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견당사는 수백 명의 외교관, 학자, 예술가, 무역상으로 이루어진 사절단을 태운 4척의 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키, 쓰시마를 경유하여 한반도 연안을 따라 산둥 반도까지 해로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하선하여 육로로 장안까지 이동하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660년대에 이르러 이 항로는 폐지되었고, 702년부터 견당사선은 고토에서 직접 동중국해를 건너 양쯔강 하구에서 상업 도시 양저우에 이르는 짧지만 훨씬 위험한 경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고토는 사절단의 마지막 기항지로 그들은 이곳에서 순풍을 기다렸다가 망망대해를 건넜습니다. 고토 북부에 있는 아오카타, 아이코 주변과 남부에 있는 미이라쿠 반도 주변에 견당사와 관련된 유적이 다수 존재합니다.